

장거리 국제선 운항 항공사 재편에 대비한 '안전 운항·소비자 보호 강화'

- 6월 21일 장거리 저비용항공사(티웨이, 에어프레미아), 대한항공 특별 점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21일 오전 서울에서 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를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와 일부 노선이 감축되는 대한항공의 안전 운항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.
- 특히,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고장·지연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티웨이 항공은 안전 운항 제고를 위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, 7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.

<안전 운항>

- 먼저,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-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라 장거리 노선 운항이 확대될 티웨이항공과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 중인 에어프레미아의 안전 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* (티웨이) 유럽 자그레브 운항 중 로마(8월), 바르셀로나(9월), 파리(8월^첫), 프랑크푸르트(10월^첫) 취항 예정
(에어프레미아) 미국 LA, 뉴욕, 샌프란시스코 운항 중, 시애틀(25년^첫), 호놀룰루(25년^첫) 취항 예정
- 우선, 각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, 항공기 정비, 조종사 훈련, 지상조업,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 체계를 철저히 검증하여, 미비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부과한다.
- 취항 후에는 3개월간(필요시 연장)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 현장에서 밀착점검도 실시한다.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안정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조종사 교육, 항공기 정비 및 부품수급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할 것도 당부했다.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티웨이항공 오사카행 항공편(TW283)의 장시간 지연 사례와 관련하여 티웨이항공이 사전에 인가받은 정비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.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.

<소비자 보호>

□ 국토교통부는 향후 대한항공이 감축하는 EU 노선의 경우 이미 예약한 승객에게 대체 여정을 제공하고, 추가 비용도 보상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대한항공에 지시했다.

○ 대한항공은 “9월 중 바르셀로나 노선 부정기편을 투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또한,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이 잦고,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결과 ‘이용자 보호 충실성’이 상대적으로 낮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지연·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.

○ 최근 티웨이항공의 오사카행 항공편을 포함하여 3월 31일(하계 시즌) 이후 발생한 두 항공사의 지연·결항 사례에서 「항공사업법」 및 「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」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“최근 국적사의 국제선 운항이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”면서,

○ “그간 기업결합과 관련한 소비자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 항공사의 안전 운항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	민풍식	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	장인갑	(044-201-4786)
담당부서	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혜	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선	(044-201-4231)
담당부서	국제 항공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	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성경림	(044-201-4215)
담당부서	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윤근	(044-201-4204)
		담당자	서기관	신익승	(044-201-418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